

## 골든스테이트-클리블랜드, NBA 파이널 4년 연속 격돌 진기록

등록 2018.05.29 16:35:43



스테픈 커리(왼쪽)와 케빈 듀런트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에서 4년 연속 맞대결을 펼친다. 골든스테이트는 2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도요타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로키츠와의 2017~2018 NBA 서부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7차전에서 101-92로 승리했다.

4승3패를 기록해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골든스테이트는 다음달 1일 시작되는 파이널에서 클리블랜드와 만난다.

골든스테이트와 클리블랜드는 2014~2015시즌부터 2016~2017시즌까지 세 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에서 만났다. 2015년과 2017년에는 골든스테이트가 정상에 섰고, 2016년에는 클리블랜드가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NBA 파이널에서 3년 연속 똑같은 매치업이 성사된 것도 지난 시즌이 처음이다. 4년 연속 또한 최초다.

미국 4대 프로스포츠인 농구, 야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를 통틀어 두 팀이 4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대결을 벌이는 것은 올해 NBA 파이널이 처음이다.

메이저리그에서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가 1921년부터 1923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두고 격돌했고, 미국프로풋볼(NFL)에서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1952~1954년 맞붙은 것이 최다 기록이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도 몬트리올 캐나디언스와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1954년부터 3년간 결승에서 만난 것이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다.



스토펙 커리

한 팀의 연속 시즌 챔피언결정전 진출 기록은 보스턴 셀틱스가 1957년부터 1966년까지 달성한 10년 연속이다.

그 다음 기록이 LA 레이커스(1982~1985), 보스턴(1984~1987), 마이애미 히트(2011~2014)와 골든스테이트, 클리블랜드의 4년 연속이다.

전반 내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골든스테이트는 43-54로 뒤진 채 전반을 끝냈다.

골든스테이트는 3쿼터에 3점포가 불을 뿜으면서 전세를 뒤집었다. 휴스턴은 외곽슛이 난조를 보이면서 흐름을 내줬다.

47-58로 뒤진 3쿼터 초반 케빈 듀런트와 닉 영의 연이은 3점포로 추격에 나선 골든스테이트는 스테픈 커리가 3점포를 꽂아넣어 3점차로 따라붙었고, 듀런트가 3점포 한 방을 더 터뜨려 61-61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커리의 3점포로 역전한 골든스테이트는 커리가 3점포 두 방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3쿼터 종료 2분 11초를 남기고 72-63으로 앞섰다.



케빈 듀런트

4쿼터 초반 클레이 톰슨의 3점포가 터져 10점차(83-73) 리드를 잡은 골든스테이트는 이후 10점 안팎의 리드를 지킨 끝에 승리를 낚았다.

커리는 3점포 7방을 포함해 27점을 몰아치고 10개의 어시스트를 배달했다. 리바운드도 9개를 잡으며 트리플더블급 활약을 선보였다.

듀런트는 34득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제 몫을 톡톡히 했고, 톰슨이 19득점을 올리며 승리에 힘을 더했다.

휴스턴은 주전 가드 크리스 폴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6차전에 이어 이날도 결장한 가운데 제임스 하든이 32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분전했으나 1994~1995시즌 이후 23년 만에 파이널 진출 꿈을 이루지 못했다.

[jinxijun@newsis.com](mailto: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